

농경제유통학부 식품유통학전공 해외선진지견학 결과보고서

인적사항	성 명	오은정	학 번	201812913
------	-----	-----	-----	-----------

활동내용

전공 관련 여행 중 인상깊었던 점과 느낀 점

2019년 2월 9일, 부산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하여 1시간 반 정도 배를 타고 이동해 대마도의 히타카즈항에 도착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대마도 히타카즈지역의 유일한 편의점인 포푸라 편의점에 방문하였습니다. 관광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이다 보니 일본에서 유명한 제품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삼각김밥, 당고, 도시락등의 HMR 제품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 눈에 띄는 제품은 자가리코 과자였습니다. 자가리코 과자는 야채맛, 치즈맛, 명란버터맛, 데리야키 치킨맛, 매실맛 등 다양한 종류의 맛과 과자 길이가 다른 제품도 존재하였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고객들의 확보하기 위해 크기나 맛을 다른 제품들을 출시한다는 점이 다른 과자들과의 차별점이라고 느껴져서 종류별로 하나씩 사 먹어보았습니다. 매실맛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른 과자에서는 먹어보지 못할 만큼 개성이 강한 제품이었습니다.



편의점을 구경한 후 점심을 먹기 위해 대마도 맛집인 히데요시에 방문했습니다. 유명한 맛집이다 보니 한국 관광객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맛은 맛있었지만 가게 안에 일본어 보다 한국어가 더 많아 일본 식당이 아니라 한국 식당 같은 느낌이었어서 일본에 왔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밥을 먹고 식당 근처에 있는 벨류 마트를 갔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벨류 마트의 경우 크지 않은 마트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리 없이 먹을 수 있는 튀김, 김밥, 샌드위치 등의 RTE제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1인 가구,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간편하면서도 맛이 좋은 HMR 제품들도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포푸라 편의점과 벨류 마트를 방문하고 HMR 제품들이 매장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1인가구, 고령화, 바쁜 현대인을 위해 조리 시간이 짧아 편리한 HMR시장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같은 제품이라도 다양한 맛을 추구하는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여 새로운 맛을 가진 제품들을 끊임없이 출시하고 있다는 것을 닛신 컵라면, 자가리코 과자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맛을 개발하기보다 좀 더 대중적이고 이미 유행하는 맛을 위주로 신제품을 출시하는데 일본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맛을 출시하여 새로운 맛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을 만족시킨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좀 더 다양하고 특색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행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과 이로 인해 달라진 점

이번 여행은 전공 관련 시설에 방문하여 우리나라와 일본 식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관찰해보기 위해 갔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해온 여행과 정말 많은 점이 달랐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식품들도 사진을 찍으면서 관심 있게 보고 강의시간에 배운 내용과 접해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직접 강의시간에 배운 내용을 경험해보니 잠시 잊고 지냈던 내용도 저절로 떠올리게 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일본 식품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면서 좀 더 많은 식품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이번 여행을 통하여 단순히 여가를 위한 여행도 좋지만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간다면 더 많고 세세한 부분까지 관찰할 수 있어 더 기억에 오래 남고 뿌듯한 여행이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행을 간다면 그 나라의 문화나 식품을 좀 더 관찰하면서 여행을 할 것입니다.

